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슬관절

논문제목 **P.F.C.**를 이용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생존율과 **mode of failure**의 분석

영문제목 **Long term survival rate of implants and mode of failure after revision total knee arthroplasty using P.F.C. by a single surgeon**

발표자 허동범 책임저자 배대경

저자 배대경, 송상준, 윤경호, 허동범, 박철희

기관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슬관절 재치환술은 장기 생존율 분석을 위한 충분한 수의 대상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소수의 다기관 연구를 통한 분석만 존재한다. 하지만 각각의 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술술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술자에 의해 시행된 재치환술의 생존율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단일 술자가 P.F.C.를 이용하여 시행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장기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재치환술 후 **mode of failure**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슬관절 재치환술은 장기 생존율 분석을 위한 충분한 수의 대상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소수의 다기관 연구를 통한 분석만 존재한다. 하지만 각각의 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술술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술자에 의해 시행된 재치환술의 생존율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단일 술자가 P.F.C.를 이용하여 시행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장기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재치환술 후 **mode of failure**를 조사하였다.

결과 : 슬관절 재치환술의 5년, 8년, 10년 생존율은 97.6%, 91.8%, 86.2%였다. 65세 이상 군의 생존율이 양호하였다($p=0.001$). 감염에 의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생존율은 마모나 해리에 의한 생존율보다 낮았다($p=0.042$, $p=0.003$). 성별, 동종골 이식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감염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마모에 의한 경우보다 **mode of failure**의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다($OR=3.65$, $p=0.031$). 65세 미만 군에서 **mode of failure**의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다($OR=9.10$, $p=0.001$). 재재치환술은 22예(9.7%)에서 시행되었으며, **mode of failure**는 감염 7예(3.1%), 해리 7예(3.1%), 마모 6예(2.6%), 삽입물 주위 골절 2예(0.9%)였다.

결론 : P.F.C.를 이용한 슬관절 재치환술의 10년 생존율은 86.2%였다. 감염으로 재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마모에 의한 경우보다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재치환술의 **mode of failure**는 감염 및 해리가 가장 많은 원인이었으며, 재치환술시 감염의 예방과 치환물의 안정적인 고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

슬관절 재치환술, **mode of failure**, 생존율, P.F.C.
